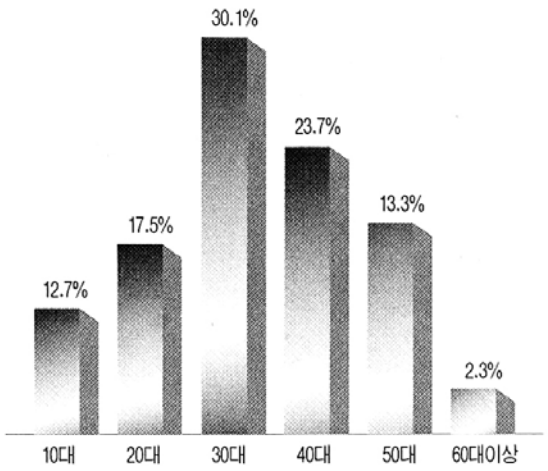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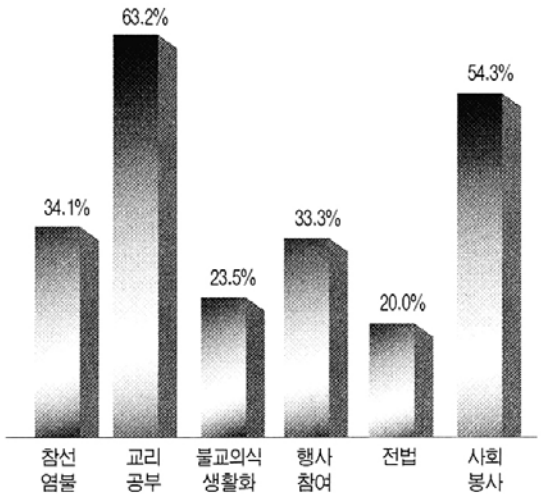
# 보시 봉사 오계 생활화 20% 미만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 불교입문시기




■ 수행 · 신행에서 강화해야 할 분야



◇불자들은 불교인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진 반면 보시의 적극적 실천에는 다소 미흡함을 보였다.

## "전생·윤회 믿는다" 56%
## '오계 준수' 여성이 남성 2배
## 입문 10년불자 신행 활발

권유는 21.0%, 7.5%, 7.1% 였다. 따라서 30~40대에 불교와 불교문화에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포교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뒤쳐지고 있는 10대와 20대 포교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함도 일깨워 준다.

이번 설문에 응한 불자들의 71.3%가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재적사찰 갖기와 신도등록에 참여한 불자들이 15만명 선이어서 조계종이 추진하는 재적사찰 갖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재적사찰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여러 사찰을 찾기보다는 특정한 사찰을 신행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사찰을 찾는 횟수도 월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82.7%에 달해 정기적인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주 1회 이상 사찰을 찾는다는 234명 가운데 남자는 86명, 여자는 142명이었다. 여성의 48.6%가 매주 1회 이상 사찰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전체 응답자 218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은 '매월 1회 이상'으로 41.3% 였다.

매월 1회 이상 사찰을 찾는 429명을 입문기간별로 분류해본 결과 신행이력이 많다고 사찰을 정기적으로 찾지 않았다. 10년 이내가 59.7%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30년 이상은 14.3%에 그쳤다.

사찰에 가면 꼭 보시를 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이 넘는 56.6% 였다. 그중에서 35%가 10년미만의 불자였다.

경전읽기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두번 이상 읽는다는 불자들은 6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전은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유마경, 법구경 순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 519명 가운데 경전을 추천한 응답자가 296명에 그쳐 여전히 경전읽기는 불자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1년간 불교서적을 몇 권 읽었느냐는 질문에 5권 이하가 59.3%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1권꼴로 읽은 응답자는 12.5%에 머물렀다.

### 불교, 인류구원의 희망

인테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신앙활동에 대해서도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등장하는 사이버 법당에 대해 51.3%가 21세기의 새로운 신앙공간으로 받아들였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 46명 가운데 35명(76.1%)이 새로운 신앙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도 주목된다. 연령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버 법당의 등장은 오히려 산사를 더 찾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14.3%였다.

'한국불교가 인류구원의 희망'이라는 말에 72.0%의 응답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같은 응답에 학력 연령 성별에 따라 유의할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종을 생각해 본일이 없다 86.3%에서 볼수있듯 확고한 믿음과 불교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불교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50.1%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종교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종교간의 화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 대도시 6개 신행단체 519명 응답

한국불교연구원과 본지는 4월 28일부터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 서울, 부산, 대구, 광주)과 우리는 선우(대표 박광서)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삼보법회(이사장 신근식)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 정토회(대표 법륜)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5월 10일 최종 회수했으며, 51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번 신행의식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이 비교적 체계적인 불교학습을 받은 집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실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9%가 배웠다고 답했다). 수거된 설문지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각 문항에 대해 성별 연령별 신행이력별 학력별 교차분석을 했다.

**설문내용 및 응답률(%)**

1. 언제 불자가 되셨습니까?
1)10대……12.7
2)20대……17.5
3)30대……30.1
4)40대……23.7
5)50대……13.3
6)60대……2.3

2. 불자가 되신 동기는?
1)스스로 선택……74.4
2)부모의 권유……11.0
3)친구의 권유……7.5
4)기타(부부의 권유)……7.1

3. 불교를 신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깨닫기 위하여(견성성불)……21.8
2)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72.3
3)나와 가족의 복락을 구하려고……3.3
4)집안 대대로 믿으니까……1.7

4. 재적사찰은 있습니까?
1)있다……71.3
2)없다……20.0
3)앞으로 정할 예정이다……4.4
4)재적사찰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3.7

5. 사찰을 찾는 횟수는?
1)매주 1회……45.1
2)매월 1회 이상……37.6
3)1년에 1번……6.7
4)초파일 등 불교 4대 명절에만 간다 ……6.6
5)무응답……4.0

6. 절에 가시면 보시를 하십니까?
1)갈 때마다 한다……56.6
2)가끔 한다……39.1
3)거의 안 한다……3.6
4)무응답……0.6

7. 월 평균 보시(후원금, 기부금 포함) 금액은?
1)1만원 이내……25.2
2)3만원 이내……30.1
3)5만원 이내……22.7
4)10만원 이내……13.8
5)10만원 이상……5.8
6)무응답……2.3

8. 경전을 자주 읽으십니까?
1)매일 읽는다……32.9
2)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다……33.7
3)한달에 한두번 읽는다……22.7
4)거의 안 읽는다 ……8.7
5)무응답……1.9

10 지난 1년간 불교서적은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1)1~5권……59.3
2)6~10권……17.5
3)10권 이상……12.5
4)한 권도 안 읽었다……6.7
5)무응답……3.9

11. 반야심경의 핵심을 이해하십니까?
1)이해한다 ……39.9
2)반쯤 이해한다 ……46.2
3)잘 모른다……13.9

12.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셨습니까?(강좌 참여 등)
1)배웠다 ……69.9
2)배운 일 없다……9.8
3)배울 예정이다……18.9
4)무응답……1.3

13. 물질을 나누는 재보시와 더불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나누는 것은 보시바라밀 실천입니다. 이를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1)잘 하고 있다……18.5
2)어쩌다 실천한다……44.5
3)전혀 못하고 있다……7.7
4)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어렵다……27.6
5)무응답……1.7

14. 평소 수행과 신행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여러 항목 선택 가능)
1)참선……20.2%
2)염불……35.1
3)법회 참석……67.2
4)경전독송·교리공부……54.5
5)사회봉사(보시의 생활화)……15.8
6)포교……9.8

15. 참선 염불 중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있다……83.0
2)없다……15.8
3)무응답……1.1

16. 재가불자의 수행과 신행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여러 항목 선택 가능)
1)참선·염불……34.1
2)교리공부……63.2
3)합장, 발우공양, 화장 등 불교의식 생활화……23.5
4)법회 등 사찰행사 참여……33.3
5)전법……20.0
6)사회봉사……54.3

17. 전생과 윤회를 믿습니까?
1)믿는다……55.9
2)어느 정도 믿는다……37.6
3)안 믿는다……5.6
4)무응답……1.0

18. 인터넷에 사이버 법당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세기의 새로운 신앙공간이 될 것이다……51.3
2)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8.5
3)오히려 산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14.3
4)모르겠다……18.9
5)무응답……7.1

19. 가족은 모두 불자입니까?
1)그렇다……59.0
2)그렇지 않다……27.7
3)믿게 할 예정이다……12.7
4)무응답……0.6

20. 자녀를 사찰법회에 내보내십니까?
1)보낸다……26.2
2)보내지 않고 있다……17.0
3)보낼 예정이다……42.2
4)보내지 않겠다……0.6
5)무응답……14.1

21. 수계를 하셨습니까?
1)했다……71.5
2)안 했다……18.3
3)받을 계획이다……9.2
4)무응답……1.0

22. 재가 오계를 잘 지키십니까?
1)대부분 지킨다……18.7
2)지키려 노력한다……76.3
3)지키기 어려워 포기상태다……2.7
4)무응답……2.3

23. 사주, 관상, 점을 봅니까?
1)안 본다……38.7
2)본 일이 있다……48.2
3)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본다……10.0
4)수시로 본다……2.1
5)무응답……1.0

24. 개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1)있다……11.9
2)없다……86.3
3)무응답……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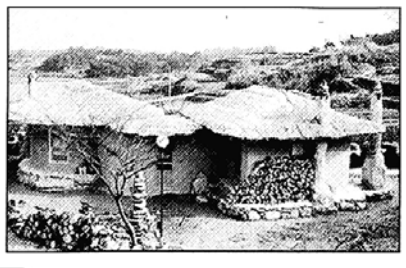
25.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있다……50.1
2)없다……23.9
3)모르겠다……22.9
4)무응답……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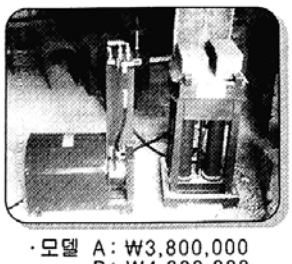
26. "한국불교가 인류구원의 희망"이라는 말에 동감하십니까?
1)전적으로 동감……31.2
2)대체로 동감……40.8
3)과장된 것 같다……12.5
4)모르겠다……10.6
5)무응답……4.8


황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회사 황토 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신제품 걸 망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卍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31cm 세로 46cm
小 가로 29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 온라인구좌 | 농 협 |
|---|---|
| 061-17-001230 | 예금주(주)천화무역 |

서울·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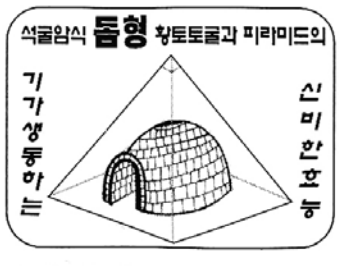
공급처 : 불자들의 모임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황토 집(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